

# 맑은 연꽃은 욕심 없이 살라 말하네

### '오채묵향(五彩墨香) 송영방'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서



예술적 의지를 조명한다.

특히, 작가는 '백련' '연' 등의 작품을 통해 불교의 상징 연꽃의 아름다움을 화폭 속에 옮겼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꽃 중에 왕이기도 해요. 사바세계는 진흙탕이죠. 이런 진흙탕 속에서 맑은 대공이 쭉 나와서 꽃망울도 나오고 7월이면 맑고 깨끗한 꽃이 만개해 절정을 이루죠. 그 아름다움 덕분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는지 몰라요. 연꽃은 식품으로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씨앗부터 잎까지 두루두루 쓰이니 고마운 존재죠."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불교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지금도 명상과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음을 고요히 맑혀 평소 생활에 임한다고 말한다.

### 연·정토 등에 불교사상 투영해 눈길 반야심경 독송과 명상으로 일상 맑혀 소박한 자연주의로 한국의美 일깨워



귀루(歸露, 1981, 한지에 수묵담채)



송영방 작가는 연잎의 앞뒤 농도를 다르게 표현 바람결에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연꽃을 완성해냈다. 작품은 '연' (蓮, 2015 한지에 수묵)

산속에서 사슴이 뛰어노는 평화로움을 담은 '정토(淨土)' 또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라는 불교사상을 담고 있다. "정토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극락세계임을 말해주죠. 분수를 알고 다투지 않고 살면 그것이 극락세계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 각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발원을 정토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이밖에도 산수의 구체적 묘사를 생략하고 이념을 형상화한 산수화 양식으로는 1980년대 집중적으로 제작한 '산과 물과 구름' '춤추는 산과 물' 시리즈가 있다. 실경산수를 바탕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강산의 모습을 울동감 있게 묘사해 작가 특유의 양식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다. 이러한 독특한 산수의 조형은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냈다.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고난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는 그는 서울대 시대 회화와 재학 시절부터 문학잡지나 신문

연재소설 등에 삽화를 그리면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한다. "70년대에 <샘터>잡지에 꽃그림을 그렸는데 법정 스님께서 "나는 법정이라는 중이요. 잡지에 난 삽화를 받을 수 있소?" 라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출판사로 넘긴 이미지는 사라져 스님을 위해 다시 그림을 그려 드렸죠. 스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인연으로 스님의 저서 <행빈 충만> 삽화도 그리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그림을 관람하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작가의 어투에서는 소박함과 겸손함이 느껴졌다. 문인화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송영방 작가의 지속적인 행보와 화업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문인화적 발상과 담담하고 소박한 예술세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자연주의적인 한국의 미감을 일깨워 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사찰음식으로 춘곤증 이겨내요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사찰식 봄나물 조리법 제안

<금광명최승왕경>을 보면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봄에는 뽕과 뜨겁고 매운 음식이 좋다고 한다. 사찰에서 사랑받는 봄의 대표 식재료는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봄나물. 봄나물은 보통 때의 채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쓴 맛과 함께 매운 맛이 있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산사(山寺)에서는 겨우내 잃었던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봄나물로 다채로운 건강식을 만들어 먹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최근 봄에 활력을 주는 봄나물을 활용한 보다 '뜨겁고 뽕고 매운' 사찰음식 메뉴를 소개했다.

먼저 부인병에 효과가 높고 향기 성분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장기를 정상화하는 쑥으로 만든 쑥밥이 있다. 쑥은 어린잎 일수록 맛과 향이 좋으며, 굵게 다진 쑥을 엮어 지은 쑥밥에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춘곤증을 없애고 입맛을 돋우는 냉이로

만든 사찰식 냉이강정은 아이들 입맛에 안성맞춤. 냉이를 튀겨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고추장 소스와 고소한 견과류를 더한다. 냉이는 특히 소화기관을 강화시키고 이뇨작용에 도움을 준다. 예로부터 영양 강장식으로 먹어왔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냉이가 눈을 맑게 해 주는 식재료라고 기록되어 있다.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원추리토장국은 어떨까.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라 하여 망우초라고도 불리는 원추리는 봄철에 나는 어린순을 주로 국에 넣어 먹는다. 뿌리에 전분이 많고 반월, 황달, 변비 등에 좋

### 쑥 엮어 양념장 곁들인 '쑥밥' 등 봄나물로 다양한 건강식 조리 가능

은 지양강장제로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 원재료인 원추리와 된장, 마른표고와 다시마만으로 깊은 맛을 내며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이 밖에도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산사(山寺)의 조리법은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봄나물을 활용한 사찰음식 메뉴를 소개했다. 사진 왼쪽은 '쑥밥' 오른쪽은 '냉이강정'



## '생사의 고해 넘어 열반의 세계' 노래

### 이미 우이 반야심경 음반 발매

이미 우이가 산스크리트어로 노래한 <반야심경>이 콘텐트코리아에서 발매됐다. 중화권과 전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유명한 이미 우이는 그윽하고 신비한 천상의 목소리로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듯 매우 신성한 분위기로 깨달음을 노래한다.

독음이 아닌 음악에 맞춰 노래한 '창승(唱頌) 앨범'으로 <범본(梵本) 반야심경>의 원문 그대로를 노래한 국내 최초의 앨범이기도 하다. 또한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원문과 우리말 독음, 영문본, 한문본 & 우리말 독음, 우리말 번역본, 반야심경과 수록곡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담긴 북릿이

삽입되어 불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미 우이가 그윽하고 신비한 천상의 목소리로 여러 악기반주에 맞춰 느린 템포로 반야심경을 3번 이어서 노래하는 첫 곡 '반야(반라)밀다심경 · 피안'은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번째 곡인 '환희심'은 인트로에서 반야심경의 마지막구절인 산스크리트어 진언 '가메 가메 파라가메 파라삼가메 보디스와 하(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를 3번 낭송한다. 타악기의 리듬을 중심으로 여러 전통 악기 반주와 진언의 운율이 맞춰 경쾌한 템포로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 전체를 5번 반복해서 창송한다.



이미 우이의 '반야심경' 앨범 표지

관세음보살이 화현한 듯한 이미 우이의 목소리는 우리 가슴 속 깊이 스며들어 깊은 울림과 파동을 일으키며, 무명(無明)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지혜를 전해 줄 것이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 여산 스님 눈에 비친 5.18 광주항쟁

### 연극 '푸르른 날에' 4월 29일부터 초연배우 마지막 고별무대로 진행

차밭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 중인 여산 스님(과거의 오민호)이 조카이자 '딸'인 운화의 결혼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연극 '푸르른 날에'의 역사적 배경은 5.18광주민주항쟁이다. 이 작품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21세기 신파극'이라는 과감한 시도로 새롭게 조명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왔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가 공동 제작하는 연극 <푸르른 날에>가 4월 29일~5월 31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다터 무대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올해로 5번째 시즌을 맞은 연극 <푸르



연극 '푸르른 날에' 공연 장면.

른 날에>는 지난 2011년 초연부터 함께 해왔던 배우들이 선보일 마지막 고별 무대다.

티켓은 인터파크와 신시컴퍼니 홈페이지, 남산예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 BBS 진주 다르마 콘서트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진주 중계소 허가 취득 기념 법회 및 창사 25주년 기념 전국순회 다르마 콘서트 '진주편'을 4월 18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실관에서 열었다.

1부는 진주중계소 허가 취득(주파수:88.1MHz) 기념 법회로 진행됐다. 라디오 중계소 신규 설립 예정인 서부경남 권역 라디오 가청권 확대를 발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 원로 스님들과 진주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불교방송의 진주중계소 허가 취득을 함께 축하했다.

2부는 전국순회 다르마 콘서트로 불교방송 진행자 월호 스님, 원욱 스님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즉문즉설 시간으로 진주 지역 불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혜숙 기자

#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